

헤이세이의 천황제는 무엇이었을까

박삼헌

2019년 4월 30일 오후 5시에 도쿄의 황거에서 천황 아키히토(明仁)의 퇴위식이 거행되었다. 이어서 5월 1일 오전 0시에 나루히토(德仁)가 일본국 126대 천황에 즉위하고 원호도 헤이세이에서 레이와로 바뀌었다. 이렇듯 레이와 시대가 시작될 때, 도쿄스카이트리 앞에 모인 많은 인파는 개원의 ‘순간’을 기다리며 카운트다운을 외쳤고, 니가타현(新潟県)에서 젊은 남녀는 결혼식을 하면서 개원의 ‘순간’을 기다려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키스’를 했고, 도쿄의 하치오지(八王子) 시청에서는 개원의 ‘순간’에 맞춰 1시간 동안 신혼부부 11쌍의 혼인신고서를 접수했다.¹ 이 모두는 레이와라는 새로운 시대를 축하하고 기념하기 위해 전국 곳곳에서 준비된 이벤트였다.

1989년 1월 7일 천황 히로히토(裕仁)의 죽음을 전후로 등장했던 일본사회의 엄중한 ‘자숙’을 배경으로 시작된 천황 아키히토의 즉위와 헤이세이로 의 개원을 기억하는 우리로서는 ‘레이와 봄’이라고도 일컬어진 일련의 황위

박삼헌(朴三憲) 건국대학교 일어교육과 교수 겸 아시아콘텐츠연구소 소장. 고려대학교 일어일문학과를 졸업하고 고베대학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천황제를 비롯한 근대일본 국가체제 형성에 관한 연구를 했고, 최근에는 메이지 이후의 ‘메이지’에 관심을 가지고 다이쇼·쇼와·헤이세이의 천황제를 연구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근대 일본 형성기의 국가체제: 지방관회의·태정관·천황』(소명출판, 2012), 『천황 그리고 국민과 신민 사이: 근대일본의 심장지리』(RHK, 2016) 등이 있다.

1 「平成から令和へ 喜びのカウントダウン 0時に誓いのキス」, 「新元号と一緒にスタート うれしい」, 『朝日新聞』, 2019. 5. 1.

계승 과정이 매우 낮은 풍경이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에 관한 궁금증을 해결하는 것이 본 기획의 목적이다.

전후 일본의 국가체제는 평화헌법과 상징천황제로 성립되었다. 하지만 천황이 동일한 히로히토였던 만큼 상징천황제를 바라보는 일본사회의 시선은 여전히 전전(戰前) 천황제의 자장 안에 있었다. 천황 히로히토의 죽음이야기한 일본사회의 엄중한 ‘자숙’이야말로 상징천황제 안에 깃들어 있던 전전 천황제의 흔적들이 수면 위로 드러난 ‘사건’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천황의 죽음을 동반하지 않는 황위 계승과 개원의 계기를 만든 천황 아키히토의 ‘생전퇴위’야말로 전전 일본의 확실한 종언이자 상징천황제의 완성체라 할 수 있지 않을까.

본 기획논문들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자료가 2016년 8월 8일 천황 아키히토가 TV를 통해서 직접 발표한 ‘상징으로서의 직무에 관한 천황 폐하의 오키토바’라는 점이 이를 뒷받침해 준다. 따라서 천황 아키히토의 죽음이 아니라 생전퇴위라는 형식으로 황위가 계승되고 개원이 이뤄진 ‘사건’은 상징천황제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인간 선언’이라 평할 수 있을 것이다.

『일본비평』에서 전후 일본의 상징천황제를 특집으로 다루는 것은 〈천황·자유·질서〉(제9호, 2013년 8월호)에 이어서 두 번째이다. 기획 단계에서부터 계산해 보면 정확히 10년이 지났다.

그렇다면 이번 기획은 첫 번째 기획과 무엇이 어떻게 다를까. 가장 큰 차이점은 전후 일본의 상징천황제를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를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기획을 담당한 박진우는 「편집자의 말」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오늘날의 천황제는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전쟁’이나 ‘침략’과 같은 ‘부(負)의 유산’과는 동떨어진 거리에서 ‘평화주의’와 ‘민주주의’의 상징으로서 정착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도 천황제는 ‘평화주의’와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존속하면서 국민통합의 구심으로 기능해 갈 것일까. 이 때 상징천황제

의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것, 혹은 간과하고 있는 것은 없을까. (중략) 오늘날의 상징천황제는 ‘황실의 위기’에 직면하여 천황을 비롯한 황족들의 ‘필사의 노력’으로 지탱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중략) 3·11은 실로 상징천황제가 그 안정적인 존속을 위해 갖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바로 그때 도래한 천우(天佑)가 아닐까. (중략) 그러나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부드러운 ‘평화 내셔널리즘’의 이면에 가려진 부분이다. 2013년 4월 28일 ‘주권 회복의 날’ 행사에서 벌어진 ‘만세삼창’의 해프닝은 그 가려진 부분의 꺼림칙한 단면을 드러낸 단적인 사례가 아닐까. 천황을 중심으로 국민통합을 강화하고 국가주의적인 질서를 재편하고자 할 때, 국민 개개인의 자유는 또다시 어떤 형태로든 구속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과거의 절대천황제로 회귀하는 일은 결코 없다고 하더라도, 천황제적인 질서 그 자체는 개개인의 자유와 결코 양립할 수 없는 속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평화와 민주주의로 치장한 상징천황제에 대해 여전히 이의를 제기하고 싶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²

첫 번째 기획에서는 ‘천황제적 질서 그 자체’가 ‘개개인의 자유와 결코 양립할 수 없는 속성을 지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때문에 그것이 ‘평화와 민주주의로 치장된 상징천황제’라 할지라도 ‘여전히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게 된다. 여기에는 ‘천황을 중심으로 국민통합을 강화하고 국가주의적인 질서를 재편하고자 할 때, 국민 개개인의 자유는 또다시 어떤 형태로든 구속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역사 인식이 투영되어 있다.

이와 같은 천황제에 대한 역사 인식에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다만, 이번 기획은 그러한 역사 인식을 전제로 하되, 그럼에도 왜 천황(제)은 여전히 ‘일본’이라는 시공간에서 존재하고 있는가라는 ‘현실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 같은 ‘현실 인식’은 첫 번째 기획 이후에 발생한 2016년 8월 8일 천황 아키히토의 이른바 ‘생전퇴위’ 오키노바를 둘러싸고 발생한 일본사회의 역전 현상, 즉 “‘전후 레짐으로부터의 탈각’을 외치며 전후 민주주의 체

2 박진우, 「편집자의 말: 천황·자유·질서」, 『일본비평』 제9호, 2013년 8월호, 4~10쪽.

제 전반에 대해 증오에 가까운 감정을 드러내는” 보수가 ‘천황은 기도하는 것으로 족하다’며 천황 아키히토의 오키노보리를 비판하고, 이와 달리 그동안 천황제에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던 리버럴이나 진보가 “전후 민주주의의 질서를 붕괴의 심연에서 구해내는 것이라는 추론이 가능”하다는 긍정적 평가를 내리는,³ 상징천황제 평가의 역전 현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시선’에서 출발하고 있다. 그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 시선은 헤이세이 30년이라는 시공간에 한정된 분석으로 구성되었다.

다른 점은 근대 이후의 “천황과 황실, 천황제도가 불변적인 것이 아님은 물론, 시대를 초월한 존재도 아니고”, “적응하는 데 한계는 있겠으나 시대에 적응하려는 존재”⁴로 보는 시선이다. 따라서 헤이세이의 천황과 황실, 천황제 또한 현재 일본의 정치와 사회에 대하여 진지하게 대응해 나가는 자세를 취하는, 본 기획의 용어를 빌리자면 ‘생존 전략’을 세우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천황(제)이 헤이세이를 거쳐 레이와에도 여전히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전쟁’이나 ‘침략’과 같은 ‘부(負)의 유산’과는 동떨어진 거리에서 ‘평화주의’와 ‘민주주의’의 상징으로서 정착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그러했을 때 ‘국민통합의 구심’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실천에 옮기고 있는 천황(제)의 생존 전략을 보여 주는 것이 아닐까.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을 토대로 본 기획에서는 헤이세이에서 레이와로, 이른바 ‘원호 전환기’를 중심으로 ‘상징’ 천황제의 생존 전략을 검토하고자 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것은 상징천황제의 정착과 안정을 지향하는 것이었다.

이제 그 구체적인 6편의 논문의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자.

박완의 「시대의 상징으로서 근현대 일본의 연호와 시호」는 천황 아키히토(明仁)의 생전퇴위로 인해 발생한 시호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근대 이후 시행된 연호와 시호가 시대의 상징으로서 천황제 생존에 기

3 시라이 사토시, 한승동 옮김, 『국체론: 천황제 속에 담긴 일본의 허구』, 메디치, 2020, 29~30쪽.

4 스즈키 마사유키, 류교열 옮김, 『근대 일본의 천황제』, 이산, 1998, 10쪽.

여하고 있는 측면을 고찰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근대 천황제의 특징으로 천황의 재위 기간에는 하나의 원호를 사용해야 한다는 일세일원제(一世一元制)가 언급된다. 이 제도는 근대 이후의 시간을 천황의 재위 기간으로 구분하고, 국민이 자신들의 일상을, 천황을 매개로 기억하게 만드는 시대적 상징의 장치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박완은 원호가 시대의 상징으로서 국민의 일상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일세일원제와 일원일호제(一元一號制)의 결합이 필요하다는 새로운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일원일호제는 천황의 재위 기간에 사용하던 원호를 그 천황의 시호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그 출발점으로는 천황 무쓰히토(睦仁)가 재위하는 기간 사용했던 원호 ‘메이지’를 그의 시호로 사용하게 된 사례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원호를 통해서 국민의 일상을 지배하는 근대 천황제의 특징은 1868년에 게이오(慶応)를 메이지로 개원하면서 시작된 일세일원제만으로는 불충분하고, 1912년에 천황 무쓰히토의 시호를 그가 사용한 원호로 결정한 일원일호제가 성립되었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렇게 성립한 일세일원제와 일원일호제의 원칙은 패전 이후에도 1979년 원호법 제정을 통해서 이어졌고, 1989년 1월 7일 천황 히로히토(裕仁)도 사망하자 곧바로 쇼와에서 헤이세이로 개원됨과 동시에 그는 쇼와 천황이 되었다고 말한다. 전전(戰前)에 성립한 근대 천황제의 ‘전통’인 일세일원제와 일원일호제가 전후에도 연면히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천황 아키히토(明仁)의 생전퇴위는 그가 ‘상황’(上皇)이지 아직은 헤이세이 천황이 아니라는 점에서 일세일원제와 일원일호제라는 근대 천황제의 ‘전통’에서 벗어난 사례를 만들어 냈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훗날 그가 사망하고 ‘헤이세이’ 천황이 될 것이라고 누구나 예상할 만큼 일세일원제와 일원일호제라는 근대 천황제의 ‘전통’은 국민들 사이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고, 이 ‘전통’이야말로 레이와 시대에도 천황제가 생존하는 데 큰 기여를 하는 장치라고 평가한다.

김태진의 「오코토바를 통해 다시 묻는 ‘상징’의 의미: 헤이세이 시대 천황의 이중성」은 천황 아키히토가 발신하는 ‘오코토바’를 통해서 상징천황제

에 내포된 이중성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천황’이 표상되는 대상이자 표상하는 주체라는 이중적 의미, 즉 담론의 생산자이자 동시에 소비자라는 관점을 전제로, ‘상징’과 ‘신체’라는 두 가지 개념으로 천황 아키히토가 오코토바를 통해서 자신을 어떻게 재현하고 있는지 분석하고 있다.

우선 ‘상징’에 대해서는 대일본제국헌법이든 일본국헌법이든 동일하게 그곳에 국민의 욕망과 의지가 재현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전후 일본의 상징천황제가 단순히 정치적 권능을 제거한 비정치적인 천황상에 기반하고 있다는 생각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 재고의 방향성은 천황 아키히토의 ‘신체’를 어떻게 볼 것인가와 관련된다. 즉 천황이라는 왕의 신체는 재현의 대상이자, 재현의 주체가 된다는 점에 주목하면서, 천황 아키히토가 재현하는 ‘신체성’을 말하고 듣는 신체, 기도하고 여행(순행)하는 신체, 고령화하는 신체로 구분하고 다음과 같이 평가한다. 천황 아키히토는 고령화하는 사회 속에서 고령화하는 신체를 넘어 제도로서 재생하는 신체를, 말하고 듣는 신체성을 통해 정동의 공동체를, 기도하고 움직이는 신체를 통해 일본 국민의 통합과 일본국이라는 상징성을 만들어 냈다고. 그 결과 천황 아키히토는 과거와 미래, 권위와 권력, 일본국의 상징과 국민통합의 상징, 국체와 데모크라시라는 이중성을 재현하는데, 이는 헤이세이의 천황과 국민들이 함께 만들어 낸 ‘상징’으로서의 천황제를 구성한다고 결론짓는다.

모테기 겐노스케의 「SNS 시대의 천황제: 약자 정치와 영성(spirituality)의 역학」은 2016년 8월 천황 아키히토의 생전퇴위 방송부터 2019년 5월 헤이세이에서 레이와로의 개원까지 개원을 둘러싼 미디어 표상 중, 정부와 황실 및 매스미디어 표상과 함께 일본인의 반응을 트위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담론에 주목하고, 그곳에 내포된 화자(話者)들의 욕망을 분석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선 주목할 만한 점은 천황의 죽음을 수반하지 않는 레이와 개원, 다시 말해서 천황의 죽음과 동시에 이뤄지는 개원이 아니라, 생전퇴위로 인해진 달 전에 예고된 개원이었던 만큼, 헤이세이를 되돌아보는 회고적 사고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대에 대한 기대가 조성될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는 점이

다. 이러한 사회적 기대감 속에서 천황제 비판의 대명사였던 일본공산당의 시이 가즈오(志位和夫) 중앙위원회 의장마저 “새 천황의 즉위를 축하합니다. 상징 천황으로서 새 천황이 일본 헌법 정신을 존중하고 옹호할 것을 기대합니다.”라는 담화를 발표할 정도로 헤이세이에서 레이와로의 개원은 이제 정치적·사회적 ‘승인’을 받았다고 평가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적·사회적 승인의 배경에는 상징의 담당자로서의 황실을 자기 혈족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천황 아키히토의 욕망이 존재한다고 분석한다. 이런 의미에서 ‘레이와 열풍’으로도 불리는 축제 상황은 사실상 천황 아키히토의 기획이라 평가한다. 그리고 그 결과 ‘레이와’를 ‘소비’하는 SNS의 목소리는 그 트윗의 주체가 의식적이었는지 무의식적이었는지는 전혀 별개의 문제로, 지극히 정치적인 맥락을 탈색하여 사회를 네오내셔널리즘으로 가득 채우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한다. 이런 의미에서 헤이세이에서 레이와로의 개원은, 천황 아키히토가 생전퇴위라는 근대 이후의 ‘예외’를 만들어 내고, 이것이 ‘레이와 열풍’으로 이어지면서 천황제의 탈정치화와 안정적 계승을 ‘욕망’하는 황실과 그것을 이용하려는 정치권의 욕망, 그리고 그것을 비판 없이 ‘소비’하며 네오내셔널리즘을 ‘욕망’하는 일본사회가 공범임을 보여 준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다.

호리에 유리의 「천황제와 성차별·이성애주의의 재생산: 일본의 국가 이데올로기 장치의 종언을 향해」는 현재를 ‘상징천황제에 길들여진 상태’로 진단한 후, 쇼와에서 헤이세이로, 헤이세이에서 레이와로 두 번에 걸친 황위 계승과 이에 대한 반천황제 데모가 지니는 의미를 분석하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젠더와 섹슈얼리티의 관점에서 천황제라는 국가체제가 일본 사회에서 어떤 과제를 지니고 있는지 고찰하고 있다.

호리에는 우선, 전후에 이뤄진 두 번의 황위 계승이 신도 행사에 대한 국비 지출이라는 점, 즉 정교분리와 사상 신조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의 측면에서 위헌이라는 관점을 제시한다. 그리고 2019년에 천황 나루히토 황위계승을 반대하는 시민단체 ‘끝내자 천황제! ‘계승’에 반대하는 네트워크’의 실천 활동을 소개하고 있다. 앞의 논문 세 편이 헤이세이 시기의 일본사

회에 정착된 상징천황제의 양상을 연호와 시호, 오코토마, SNS를 통해서 분석했다면, 호리에의 글은 그와는 반대로 시민사회에 여전히 존재하는 천황제 반대의 실천 운동 사례를 보여 주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귀중한 의미를 지닌다.

그렇다면 호리에가 분석하는 천황제 지속의 문제점은 무엇일까. 그것은 세습으로 유지되는 천황제라는 황위 계승 시스템이 ‘남계 남자’ 규정과 출산의 강제라는 문제, 즉 사생활 영역에 속한 임신과 출산에 대한 강요, 그리고 반드시 누군가는 사내아이를 낳아야 하는 제도이고, 이것이 성차별과 이성애주의의 산물이라는 진단을 내린다. 그리고 헤이세이에 이어서 레이와에서도 계속 제기되는 여계·여성 천황, 여성 미야케(宮家) 설립 등의 가능성 담론에 대해서도 여성의 주체가 금지되어 있는 황실 제사에 대한 그 어떤 논의도 없다는 점에서 허구라고 강하게 비판한다. 그리고 그 근거로서 근대 이후 국가 통합의 이데올로기 장치로서 가족국가관, 사회시스템으로서 호적제도, 가족정책으로서 이성애주의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민족/인종과 식민지주의, 국민국가라는 개념과 천황제 문제 등을 시야에 둔 쿼어 연구의 가능성도 제시하고 있다.

박이진의 「‘지속 가능한’ 천황가 서사와 시선의 권력: ‘마사코 황후’에 대한 대중의 판타지와 관음적 시선」은 헤이안 시대의 대표적인 황실 스캔들의 주인공인 황태자비 마사코, 그리고 그의 자녀 아이코의 황위 계승 가능성을 소재로 삼아 황실 여성에게 집중되는 대중의 욕망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있다.

박이진에 따르면, 레이와 개원으로 황태자비에서 황후가 된 ‘마사코’에 대한 서사적 특징은 그를 ‘바라보는’ 대중들이 끊임없이 환상의 세계를 만들어 가는 유희적 성격을 가진 대중적인 판타지라는 점, 하지만 대중은 그 서사를 만들어 내고 소비하는 태도가 쾌락을 위한 욕망의 분출로 끝나지 않고, 공무라는 사회적 의미와 역사성을 판타지 세계에 결합하여 새로운 만족 대상을 찾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즉 천황 아키히토가 상징천황제의 핵심으로 실천한 ‘공무’가 마사코라는 기표에 더욱 몰입하기 위한 명분으로 강

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아이코 천황론’에 관한 대중의 관심은 과거 남계/남자 계승이라는 기존 천황가의 특수성을 국민이 직접 개입해 논쟁적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 준다고 평가한다. 이런 의미에서 이것은 ‘황실 유지’라는 상황 아키히토의 욕망과 마사코 황후의 공무에 투사된 레이와 대중의 판타지가 결합이 만들어 낸 가능성이라 할 수 있다.

김보경의 「미디어와 황실 스캔들: 마코 공주의 결혼에 관한 일본의 미디어 보도를 중심으로」는 헤이세이 황실의 또 다른 스캔들로 등장한 마코 공주의 결혼에 대한 미디어 보도와 SNS의 반응 그리고 이에 대한 마코 공주의 대응을 분석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헤이세이 시대에 황실 존속 문제가 제기된 상황에서 마코 공주의 미래 배우자 고무로 게이가 미래의 ‘황족’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이 스캔들의 핵심이라고 지적한다. 즉 미디어는 황위 계승의 자격을 지닌 남성 황족이 부족한 상황에서 과연 황실이 남계 혈통만으로 이어지는 정통성을 유지하며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라는 헤이세이의 불안을 잘 활용하여 마코 공주의 결혼을 공론화하고 검증이 필요한 문제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 결과 마코 공주의 결혼 문제는 황실에 들어가는 세금 문제라는 관점, 즉 전후 모든 황실 재산이 국가에 귀속된 이후 황실 계승 행사와 관련지어 제기되던 세금 문제가 이제는 그 적용 범위가 황실 전체로 확대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한다. 이런 의미에서 마코 공주 결혼 문제는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 또는 ‘애국심 환기의 상징’, ‘민족적 아이덴티티의 중핵’으로서의 천황과 황실이 아니라 일반적인 연예계의 ‘스타’들과 동일시된, 그 결과 황실이 더 이상 신성불가침이 아닌 ‘스타 패밀리’로 소비되는 대중의 황실 인식을 보여 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미디어가 야기한 사회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전통을 깨고 자신의 의사를 관철한 마코 공주와 이를 용인한 레이와 황실의 모습은 오히려 ‘국민’이 아닌 ‘통합’되지 않는 개인들이 공존하는 레이와 시대의 일본사회의 축소판이라고도 평가한다.

참고문헌

편집자의 말

헤이세이의 천황제는 무엇이였을까 | 박삼헌

박진우, 「편집자의 말: 천황·자유·질서」, 『일본비평』 제9호, 2013.

스즈키 마사유키, 류교열 옮김, 『근대 일본의 천황제』, 이산, 1998.

시라이 사토시, 한승동 옮김, 『국체론: 천황제 속에 담긴 일본의 허구』, 메디치, 2020.

「平成から令和へ 喜びのカウントダウン 0時に誓いのキス」, 「新元号と一緒にスタート うれしい」,
『朝日新聞』, 2019. 5. 1.

특집 | 헤이세이(平成) 30년, '상징'천황제의 생존 전략을 묻는다

시대의 상징으로서 근현대 일본의 연호와 시호 | 박완

1. 사료

『官報』

『東京朝日新聞』

『東京日日新聞』

『読売新聞』

『記録材料・建白書仮綴』(일본 국립공문서관 소장)

『皇室典範義解』(일본 국립공문서관 소장)

『太政官日誌 慶応4年 第17-18巻』(일본 국립국회도서관 디지털 아카이브)

「機密 喪議第壹号 皇室喪儀令案定本 伊藤帝室制度調査局総裁上奏」(일본 궁내공문서관 소장)

「皇室喪儀令(儀註整理案, 大正9年12月21日主査会可決)」(일본 궁내공문서관 소장)

「侍従長徳大寺實則日記 自明治18年3月至大正3年5月/10」(일본 궁내공문서관 소장)

「第89回帝国議會 衆議院 予算委員会 第3号」(일본 제국의회 회의록 검색 시스템)

「第90回帝国議會 衆議院 本会議 第19号」(일본 제국의회 회의록 검색 시스템)

「第7回国會 參議院 文部委員会 第6号」(일본 국회 회의록 검색 시스템)

「第87回国會 衆議院 内閣委員会 第5号」(일본 국회 회의록 검색 시스템)

「第87回国會 衆議院 内閣委員会 第7号」(일본 국회 회의록 검색 시스템)

「第87回国會 參議院 内閣委員会 第9号」(일본 국회 회의록 검색 시스템)

「第87回国會 參議院 内閣委員会 第12号」(일본 국회 회의록 검색 시스템)